

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알림]

*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한 교회생활안내

1. 계속해서 주일 오전 2부, 3부 예배 이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합니다.
 * 16일(월)부터 새벽예배와 22일(주일)부터 4부(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2. 주중에는 예배당 및 교회 시설과 카페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3. 교역자와 직원은 종전대로 업무를 하오니, 필요한 상담과 심방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교회생활지침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1. 소천 - 2교구 박종미 성도(가양2-4) 시모 / 7일(토)

섬기는 분들

▲월요일당직 : 오상욱 목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이대영
부목사 고윤철 오상욱 김종명		송경호 정기조 윤종명 황덕순 임현성
전도사 김명순 조정욱 전상순		김수중 임인성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지서광(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태응 최영일 윤재룡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안철호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박선정 권영은 김정은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숲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주일예배

1부 / 오전 7:00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4부 / 오후 1:50

* 입례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310장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윤종명 장로(2부) / 황덕순 장로(3부)
성경	눅 5:1-11
설교	예수님의 기적(9) : 빈 배를 만선으로 만드신 기적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우릴 사용하소서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목요일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해
쉽니다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전도

오전 10:00 (소예배실)

사사기
- 담당 교역자 -

- 잠정 연기 -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부		안내위원	2,3부	2 여 전 도 회	
	2부	황덕순 장로		헌금위원	2,3부	담 당 자
	3부	임현성 장로		주보배부	2,3부	2 여 전 도 회
주일새벽	금 주		식당봉사	금 주		
	내 주			내 주		
주일오후	내 주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태순 박대태 박대수 이길천 이종규 임춘수		
	내 주			차량운행	2호/ 이본구 집사 010-8281-3779	
수요일예배	1부		3호/ 김동윤 집사 010-6804-5574			
	2부		권소열 장로 010-8070-3533			
			4호/ 유창중 집사 010-6407-8515			
			5호/ 이울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	목요일영성기도회	저녁 8:00	
	4부 예배	오후 1:50	초등부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오전 9:00		
		청년회	오후 1:50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16일)	최영희
화 (17일)	송정숙
수 (18일)	공종호 심윤중 이인창
목 (19일)	정윤옥
금 (20일)	임현성
토 (21일)	황덕순 이종욱
주일 (22일)	유창웅 김정식 정영자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당	시간	장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도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도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심윤중 권사	오전 11~12시	기도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일영성기도회	저녁 8시~10시	본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욱 권사	밤 12시~4시	한나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도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도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15일(주일)	16일(월)	17일(화)	18일(수)	19일(목)	20일(금)	21일(토)
성경	삼상6-8	삼상9-11	삼상12-14	삼상15-17	삼상18-22	삼상23-25	삼상26-28

♣ 꽃꽂이

* 금주: 김수종 장로, 김영자 권사 * 내주: 신윤석 집사, 이지혜 집사

♣ 환우

☞ 2교구

* 윤명심 권사(비래2-4), 이지영 집사(남2-2) 딸 - 뇌수막염 / 한국병원

☞ 3교구

* 이명숙 권사(가양3-5), 하길식 집사(남3-1) 아내 - 췌장암 / 세브란스병원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공부/ 당회실 만남/ 목양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분	내용	기간	사역목표	담당자	
새가족양육	새가족반	4주	새가족 필수 과정	오상옥 목사	
	학습·세례준비반	3주	신앙 교육 강화	담당자	
신앙성장과정	교리생활공부	1년	1학기: 교리편 2학기: 생활편	담임 목사	
	가정사역학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혜경 사모	
	제자훈련	제자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구 목사
		사역반	1년	사역자 양육	담임 목사
	목자훈련	매주	목자 훈련	각 교구 교역자	
	양육 1 단계	5주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당자	
	회복수양회	1박2일	내적 치유	담당자	
	양육 2 단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험하기	담임 목사	
	중보기도학교	6주	기도 헌신자 훈련	담당자	
	바나바 학교	4주	새가족 양육자 훈련	담당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당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 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 전도사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주일 1부	시 온	이중운	김예원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일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3월 행사 안내

--	--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한 협조의 말씀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신천지 사태로 인해 대전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대전 역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교우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회생활 지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당 입장 시에
 - (1)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꼭 착용해주시고,
 - (2) 1층 로비에서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도들과의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고, 기침시에는 옷깃으로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분간 주일에는 교회중식과 카페운영을 중단하며, 주중에는 목장 모임을 중단합니다.
- 당분간 화장실쪽 출입구는 사용을 중지하오니, 1층 현관 로비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분간 성도님 외의 새로운 분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 출타를 하였거나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주일 말씀으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회는 주 1회 토요일마다 각 예배실과 교육시설, 그리고 모든 시설에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기회에 시편 91:1~7을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경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박춘국,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은)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윤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신태팔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세종중부교회 · 기독교임즈
- 가야곡중부교회 · 총신대학교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신학교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동대전중학교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가양중학교
- 두란노아버지학교 · 명석고등학교
- 군선교연합회 · 내홍릉 노인회
- 주바라기선교회 · 가양2동 노인회
- 대전기독교방송 · 신도 노인회
- 대전극동방송 · 더퍼리 노인회
- 대전CTS방송 · 비래1,2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예수님의 기적(8) :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기적(마8:5-13)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예수님은 마땅히 믿어야 하는 자기 동족, 자기 고향 사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셨다(막6:6). 그리고 오늘 이방인이자 군인이 백부장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이방사람도 천국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 믿음의 그릇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큰 그릇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살펴보자!

1. 사랑의 마음을 가진 믿음

(5-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이나 가족 때문에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서이다. 로마시대에 종이란,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병 걸린 이 종은 아무 쓸모가 없어 내다 버리면 끝이다. 그러나 백부장은 종을 사랑으로 대했다. 예수님은 이 사랑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즉시 응답하신 것이다. 바로 백부장의 종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이다. 사랑은 불가능의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체면과 상황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백부장이 가진 사랑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믿음' 때문이었다.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2.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믿음

(7-8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당시 상당한 부와 권세를 향하여 로마군대의 장교였던 백부장은 예수를 향하여 '주여'라고 부른 것이다. '주'라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비하시키는 고백이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자요, 보잘 것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의 문제는 조금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고,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하게 되면,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나? 왜 내게 직분을 주지 않나?” 하면서 스스로 자만에 빠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부족하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3.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8-9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오랫동안 장교 생활을 하면서, 지휘관의 '권세'와 '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이 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군에서도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이렇게 백부장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다(8절).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 내키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개인새벽예배 목상집

20일(금) 찬 320장 샷 1:27-36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요셉 가문은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유다 지파에게 요단 강 서편의 남부를, 요셉(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중부를, 단과 베냐민 지파에게는 유다와 요셉 사이의 지역을,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북부를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고 합니다. 전혀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처지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더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을 앞세우고, 여건을 탓하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21일(토) 찬 324장 샷 2:1-10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결국 불순종은 그들에게 울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통곡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에 실패했고,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에게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구원 사역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담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지나친 적은 없습니까?

22일(주일) 찬 268장 샷 2:11-23 여호와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실 때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때도 말씀대로, 맹세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복을 위해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주기 위해 선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 앞에서는 진노하시지만, 백성들의 눈물 앞에서는 사랑과 위로의 본성을 보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사로 인해 평안을 되찾은 상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사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더욱 타락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 강숙녀 강진선 고윤설(박혜란) 고한례 김기성 김두경(김경선) 김미자a 김복실 김석순
- 김선철(이인자) 김순이 김영숙 김영술(최진숙) 김정순a 김정술 김종명
- 류재은(이종순) 박미혜 박연희 박정자b 배정만 백규현(양미숙) 순찬호(이영숙b)
- 안장현 오양순a 오연자 윤동근(신영순) 윤성수 윤창수(김경순) 이명국(이용매)
- 이상우(이성희) 이정아 이해정 정구훈(김순옥b) 정기조(이종옥) 정흥식(유영란)
- 조규연(서정순b) 채기병(최영희) 최국현(이영숙c) 황현숙 무명

감사헌금

- 강숙녀 강진선 김두경(김경선) 김복실 김영천(남정혜) 김재순 김정순a
- 김종명(이은진b) 김태순 김혜자 문영화 박충순(오명숙) 손석남 신신혜 신영순
- 안중근(국은희,안종경) 안중근 윤창수(김경순) 이경호(송이순) 이관희 이영학(김성순)
- 정기조(이종옥) 조상용(김혜경) 조정옥 최국현(이영숙c) 최영란a(박민지) 최정숙
- 더리스,테라베오 무명

선교헌금

- 강진선 고윤설(박혜란) 고한례 구은정 김경덕(이수진) 김기성 김두경(김경선) 김미자
- 김민서 김복실 김서연 김석순 김순옥b 김예현 김정순a 김정술(최화단)
- 김종명(이은진) 김혜자 류재은(이종순) 박덕천(강순애) 박연희 박옥자 박종보 배정만
- 백규현(양미숙) 서호석(김민희) 순찬호(이영숙) 안장현 오양순 오연자 윤동근(신영순)
- 윤석의 윤성수 윤지우 이길천 이동영 이명국(이용매) 이정아 정구훈 정기조(이종옥)
- 정흥식(유영란) 채기병 최국현(이영숙) 최화단 황미애 황현숙 4남전도회

꽃꽂이헌금 김수종(김영자b) 김진수(김진우,김재윤)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6일(월)	찬 387장	고후 13:1-13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	---------------	-------------------	------------------------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회에 세 번째 방문하게 될 때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치리하겠다고 밝힙니다(1~2절, 참조 신 19:15). 그동안 그들에게 편지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겸손히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가운데 계신 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주 안에서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5절).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살도록 간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6~7절). 이처럼 바울은 권면과 치리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도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쁨으로 선을 권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일(화)	찬 347장	삿 1:1-7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	---------------	----------------	---------------------

고린도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다고 합니다(2절). 특히 비방하는 자들의 눈에는 바울이 그다지 권위 있어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어떤 권위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바울이 실제로는 영적인 권위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먼저 섬기는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이나 권위가 아닌 섬김으로 고린도교회를 대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섬김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육체에 속한 부와 명성과 정치적 권력 등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힘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적대적인 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응합니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8일(수)	찬 352장	삿 1:8-15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	---------------	-----------------	----------------------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였던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뤄 주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였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과 싸웠으며 거인족 아낙의 세 자손인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와 싸워 이겼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갈렙이 그 딸 악사에게 했던 약속이 기록된 여호수아서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이것이 모세 앞에서 주어진 약속이었음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보여 줍니다. 갈렙의 지도력과 웃니엘의 용맹스러움이 어우러져 유다 지파는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점령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며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갈렙과 같이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19일(목)	찬 321장	삿 1:16-26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	---------------	------------------	-------------------

바울은 자신을 남편인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인 고린도교회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중매자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으로 인해 이 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게 되자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2~3절). 사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거짓 복음에 미혹돼 바울을 열등한 사도로 여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면서 말(복음의 전달 방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지식(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합니다(5~6절).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고린도교회에서는 무보수로 사역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겸손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13~14절).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지키며, 교회의 영적 안녕과 순결에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자라면 내가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애끓는 심정으로 헌신해야 옳습니다. 늘 믿음으로 주어진 시험을 능히 이기는 사명자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